■30년만에 완공된 가거도 방파제…주민들 삶이 바뀌다

지난달 30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독실산(639m)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방파제와 선착장이 옅은 바다 안개 속에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태풍 걱정 끝…물양장 생기고 관광객 급증

'불안의 바다'가 '희망의 바다'로

64t·108t 구조물 5천개 들어간 大役事
선착장 수심 깊어져 대형 여객선 정박도

'공사기간 30년, 공사 비용 1천325억원.'

고속도로 공사 등 대형 플랜트 사업이 아닌 길이 490m, 폭 15.2m짜리 방파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과 시간이다. 신안 가거도(可居島·소흑산도) 방파제 공사가 30년 만에 끝을 맺고 이달 말 준공식을 기다리고 있다. 가거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가 오랜 시간 진행된 만큼 방파제 준공에 대한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건설업계 '대기록'**= 방파제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78년. 1976년 불어닥친 태풍 '프랜'으로 어선 579척이 파손·침몰당하고 3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가거도항을 피항처로 지정,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파제 공사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공사 도중 불어닥친 세 차례의 태풍으로 각종 시설물들이 유실되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파도의 세기를 완만하게 해주는 '테트라포드'(TTP) 무게는 25t에서 32t, 64t으로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이마저 거센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108t짜리 대형 큐브블럭(Cube block)까지 설치되면서 공사는 마무리됐다.

현재 방파제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테트라포드 수는 모두 5천여개. 이 중 3천963개는 64t이고, 나머지 1천37개는 108t 큐브블럭이다. 64t짜리 테트라포드 한 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시멘트는 40kg 기준 250포대이다. 이 때문에 애초 300억원 정도 예상됐던 예산은 1천325억원으로 불어났다. 1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공사도 30년이나 걸렸다.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은 현장을 뒤엎은 태풍과 파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공사비를 찔끔 지원하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방파제 공사에서만 이렇듯 막대한 예산과 공사기간이 걸린 것에 대해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다.

◇**주민 생활 변화**=방파제가 완공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바뀌었다. 길이 200m·폭 30m의 물양장 확보로 어구와 고기 손질이 가능해 지면서 조기·열기·광어 등 많은 양의 고기잡이가 가능해졌다. 태풍 소식만 들어도 늘 불안했던 주민들은 이제 높이 50m인 장군 섬을 덮칠 만큼 높은 파도가 밀려와도 방파제를 믿고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또 선착장 수심이 16~30m까지 확보되면서 대형 여객선 정박도 가능해졌다.

가거도가 남도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월 평균 관광객 수는 1천200명으로 완공 전 60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공사가 끝나면서 아쉬움과 걱정도 많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가장 큰 일터가 사라진 것이다.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주한 시공사 삼부토건 직원은 최대 200명. 이 직원들 식사에다 이들의 가족 등의 방문으로 식당과 민박집은 항상 만원이었다.

이연우(49) 현장소장은 "그동안 가거도 주민들과 결혼한 직원 수도 5명이나 된다. 태풍이 불 때마다 직원들이 제 일처럼 중장비들을 동원해 배를 육지로 끌어 올려주기도 했다"며 "주민들과 단 한 차례도 마찰 없이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막상 섬을 떠나려고 하니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조종환(56) 마을이장은 "삼발이가 더 보강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라며 "거센 파도로 삼발이가 파손되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가 철수될 경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가거도=신안군 흑산면에 딸린 섬으로 면적은 9.18㎢. 독실산(639m)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기암괴석 및 후박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희귀 동식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 3개 마을 290가구에 52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목포에서 배로 4시간 정도 걸리며 낚시, 등산객, 스킨스쿠버 등 연간 1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소흑산도라고도 불리며, '가히 사람이 살 수 있다'해서 '가거도(可居島)'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정부, 5·18 관련 예산 30% 삭감 추진

기념사업 큰 차질 우려

5·18 기념사업 관련,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5·18 관련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11일 5·18 기념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2009년도 5·18 기념사업(광주 민주·인권·평화 사업비) 예산을 30% 가량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5·18 기념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20~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행안부의 방침대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부터 상당수 5·18 기념사업의 폐지는 물론, 축소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념재단 측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청소년 교육사업(5·18 관련 책자 발간 등)을 비롯한 장학금 지급·국내 및 아시아 NGO 단체 지원·인권상 시상식 등 30여개에 달한다.

특히 최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정부가 방침대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지역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기념재단 측은 오는 14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정부의 원칙 없는 예산 삭감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5·18 기념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다채로운 5·18 행사

기념일 일주일 앞두고 역사기행 등 다양

5·18 제28주년 기념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다양한 기념행사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광주시민들은 5·18 민주묘지를 비롯한 5·18 민주공원, 옛 전남도청 등을 찾아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등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5·18현장을 찾아 떠나는 체험 프로그램 '역사기행'이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됐다. 11일 역사기행에 참가한 50여명의 학생·시민들은 옛 전남도청과 5·18 기념공원,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 5·18묘지 등을 둘러보며 5월 그날을 직접 체험했다.

또 지난 9일부터 옛 전남도청 본관 1·2층에서 시작된 애국지사 캐리커쳐전·희망의 꽃 판화체험전·설치전 등을 내용으로 한 기획·체험전(9일~27일)에도 시민들이 몰렸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난 9일부터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정신계승 헌혈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5·18 묘지와 인근 망월묘역에서는 지난 7일부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리본달기 행사와 만장전이 열리고 있다. 5·18 제28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5·18을 체험하면서 당시 광주시민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 효천고생 2명

눈물의 영결식

순천 효천고 수학여행 사고 사망 학생들에 대한 영결식이 11일 오전 모교 체육관에서 학교장으로 이뤄졌다. 이날 영결식은 유족, 재학생, 교직원, 동문회 관계자 등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묵념, 약력 소개, 조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 최대현, 김성재군 유족들은 교육당국의 무성의한 사고수습에 항의해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결식을 연기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교회 활동 안전사고 대책, 부상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등 유족 측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영결식이 열렸다. 김군 등의 유해는 순천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구례군 하늘공원 납골당에 안치됐다.

부상당한 효천고 학생과 인솔 교사 등은 이날 현재 순천 성가를로병원과 전남대병원, 서울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다용도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보험 넣겠다" 설계사 유인 강도짓

쌍나팔

○…보험회사 지점에 전화를 걸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속여 보험설계사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쇠고랑.

○…여수경찰은 11일 보험설계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유모(24·경기도 의정부)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 모 보험사 여수지점에 전화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보험설계사를 보내달라"고 한 뒤 전화를 받고 나온 설계사 박모(여·43)씨를 과도로 위협하고 현금 1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험 가입 운운하며 만나자고 할 때면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

/여수=박양규기자 ykpark@